

소녀시절의 꿈 남극행, 아줌마 되어 이룬다

‘안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중학교 시절, 엄마가 보여준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접하고 늘 마음에 품었던 꿈이다. “새하얗고, 아름답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남극에 꼭 가고 싶다.” 꿈은 현실이 됐다. <관련기사 16면>
광주 출신 안나(29)씨가 최근 남극 세종과학기지 지로 떠났다.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가 파견하는 제28차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 생활 연구원 자격이다. 여성 월동대원으로는 28년 역사상 3 번째다. 한국 여성으로는 남극 땅을 처음 밟은 아시아 최초 여성 남극월동대장 안인영 박사 팀 17명과 함께다. 안씨는 전남대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학부시



안나씨

절에는 철학을 부전 공했고 도쿄대 정보이공학계 연구생을 거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지능형 융합 시스템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원 졸업논문으로 ‘행복한 남극 월동 디자인’을 쓸 정도로 남극만을 보고 달려온 안씨는 지난해 첫 도전에서 실패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올해 재도전,

광주출신 안나씨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원 출발
기지 주변 토양 및 해수 모니터링 등 생물연구
‘안나의 남극통신’ 본보에 새해부터 1회 연재

꿈을 이뤘다. 동신여고 행정실장인 안병수, 문인화가 임경림씨의 첫째딸인 안 씨는 세 살짜리 아들 희노를 둔 엄마이기도 하다. ‘남극에 가고 싶었던 여자’ 안나씨는 ‘우주에 가고 싶은 남자’ 이민구(32)씨와 결혼했다. 현대 모비스에 근무중인 이씨는 대한민국 우주인 선발대회에 참가, 30명 안에 들기도 했다. 2016년 1월까지

세종 기지에 머무는 안씨는 기지 주변 토양 및 해수 모니터링 등 생물연구를 맡게 된다. “제가 맡고 있는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자연 자체에 대한 경이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원형에 가까운 자연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계절을 모두 보내면서 생물학자로서의 역할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나씨가 전하는 생생한 남극 이야기는 ‘안나의 남극 통신’을 통해 2015년 1월 1일자를 시작으로 매월 한차례씩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자동차밸리 육성”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2015년 시·도정 방향 설정



KTX·문화전당·U대회 총력
광주 발전 획기적 전기 마련



호남생생·공동 관광상품 개발
섬·숲 브랜드 시책 본격 추진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2015년 시정과 도정의 방향을 설정했다. 윤 시장은 광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이 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출발점으로 2015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24일 “민선 6기 2년차인 2015년을 광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을 미년 새해는 호남고속철(KTX) 개통, 하계 U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등 광주에 희망찬 빛이 밝아오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시장은 특히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전기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노·사·민·정 사회통합 여건을 성숙시켜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윤 시장은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비롯한 12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 예산제, 공약평가 시민 배심원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계 각종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치공동체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2015년 도정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민선 6기 브랜드 시책 본격화, 지역 성장동력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날 송·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은 민선 6기 도정이 준비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항하는 첫 해

로 즐거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5년 호남선 KTX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광주하계 U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및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한·중 FTA 발효 등 지역발전의 좌우할 대형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역풍은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순풍은 발전의 속도를 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15년 주요 정책으로 맨 먼저 ‘청년이 돌아오도록 하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모든 시책의 초점을 일자리를 늘리는데 맞추고 한편의 에너지밸리 등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식품가공, 신소재, 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역산업의 역동성 강화와 신산업의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석유화학·철강의 고도화, 조선·해양의 다각화와 함께 우주항공, 세라믹 생물의약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선 6기 브랜드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도 향후 20~30년 먼 미래를 보고 기틀을 잡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팅장 개장
광주시민의 겨울철 여가시설인 광주시청 문화광장 내 야외스케이팅장이 24일 개장했다.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주말 및 공휴일 밤 9시30분까지) 문을 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워크아웃 끝나자마자 파업

광주·곡성·평택공장 일제히 돌입

금호타이어 노조가 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전날 금호타이어가 5년 만의 워크아웃 종료이라는 ‘경사’를 맞았으나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8면>
2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이날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 등 국내 3개 공장에서 오전조를 시작으로 3개조가 출근 집회 형태의 2시간 부분파업을 각각 실시했다. 노조는 25일 오전조까지 2시간의 부분파업을 추가로 벌일 예정이며 29일 및 30일에는 한층 수위를 높여 조별(오전·오후·야간·주간조)로 4시간의 경고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전날 열린 30차 노사 본교섭에서

사측의 최종 제의안에 대해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 사측은 교섭에서 ▲격려금 200%(설 50% 포함)+100만원 ▲내년 1월부터 평균 임금 15%(반납분 환원 5% 포함) 인상 ▲상여금 200% 환원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안을 내밀었으나 노조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끝내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15% 인상은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호봉간 금액이 감소된 신규 임금제이므로, 총인건비를 하락시키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창규 대표이사는 “노조 집행부의 무책임한 파업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회사와 사원들에게 다시금 뼈아픈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금호타이어 김창규 대표이사와 광주공장 노조 허용대 지회장 등과 만나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스포츠 10대 뉴스 ▶ 20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된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이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한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이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0-5454 (수신시간: 09:00~18:00)